

역사속으로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 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4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79년 서울북공고에 인쇄과 설립

1979년 4월 1일 인쇄문화시보는 서울시 하월곡동에 위치한 서울 북공고에 최초로 인쇄과가 개설되어 60명의 신입생을 뽑았다고 전하고 있다. 서울북공고에 인쇄과가 설치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서울공고가 유일했다. 하지만 정부의 공업학교 특성화 방침에 따라 서울공고가 기계공고로 바뀌면서 79년도부터는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게 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서울공고 인쇄과는 81년 졸업생을 끝으로 인쇄과가 없어지며(나중에 다시 생기지만) 서울북공고 인쇄과 육성을 위해 서울공고에 있던 한승희(현 서울한강전자공업고등학교 광고사진과) 교사 외 1명이 서울북공고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존경받는 인쇄인

'존경'이라는 단어의 사용빈도가 극히 줄어든 요즘이지만, 1954년 4월 24일자와 1971년 4월 1일자 신문에는 존경받는 인쇄인에 대한 기사를 실고 있다. 먼저 1954년 4월 24일자 신문에는 '일생을 인쇄문화에 바친 고 김기오씨를 애도함'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다. 김기오씨는 인쇄인이며 아울러 출판인으로 48년 9월 일반 공모를 통해 국내 최초의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인 대한교과서주식회사를 설립한 인물이다. 김기오씨는 대한교과서 창립 이외에도 대한인쇄고등기술학원 설립을 주도하고 동 학원장을 역임했으며, 대한인쇄문화협회 부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아울러 '현대문학'이란 잡지를 발행하기도 했다.

1971년 4월 1일자에는 '고 김기봉씨 묘비건립'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김기봉씨는 문전사진제판소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한 이래, 조선인쇄 사진부, 국제문화인쇄 사진제판부장 등을 거쳐 55년 서울시 중구 인현동에 사진제판 전문 회사인 '정현사'를 설립한 인물이다. 신문은 "개화기부터 사진제판기술 개발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서거한 고 김기봉씨의 생전의 업적을 추모하기 위해 평소 그의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이 손길을 모아 고인의 묘소에 아담한 기념비를 세움"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국회의원 배출시켜 현안문제 해결하자

1958년 5월 2일에는 제4대 국회의원 총 선거가 있었다. 이에 인쇄문화시보는 선거에 출마하는 인쇄 및 출판 그리고 제지 관련 후보자들을 상세히 소개했다. 인쇄문화시보가 관련후보자들을 상세히 설명한 이유는 국회에 좀더 많은 인원을 진출시켜 '특별행위세 철폐'와 '군관인쇄공장에서 민간인쇄물 수주' 문제 등에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업계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3대 국회에는 인쇄 및 출판 관련 출신 인사로 남송학, 김종규 의원 등 두 명의 국회의원이 있었다. 4대 국회 진출을 노리고 입후보한 인물들은 남송학, 김종규의원 외에 이향우, 김기용, 강호영, 민장식, 홍봉진, 김원전씨 등이다.

하지만 인쇄문화시보의 열면 지원(?)에도 불구하고 제4대 국회에 진출한 인사는 민장식(민주당), 홍봉진(민주당),

김원전(자유당)씨 등 3명으로 단 1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한편 특별행위세는 일제시대이던 1943년에 생겨난 세법으로 해방 후에는 49년 10월에 신설되었으며, 각종 사치성(?)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그 명목이었다. 인쇄인들의 바람대로 많은 인원이 당선되진 못했지만 1960년 지방세 법 조례 개정 당시 특별행위세 부과 품목에서 제외된다.

삼화인쇄 일본에 인쇄물 수출 성공

1964년 4월 15일자 인쇄문화시보는 '업계의 꿈 드디어 실현'이란 제목으로 우리나라 인쇄물 수출의 첫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 인쇄물 수출의 주인공은 다름이 아닌 삼화인쇄.

신문은 '국내산업계가 외화획득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때 우리 인쇄업계도 해외수출시장개척에 성공하여 일본으로부터 이미 오천불의 신용장이 내려하여 한국의 인쇄산업도 수출산업으로써 각광을 받게 됐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삼화인쇄 이전에도 수출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는 해도 '미 8군 군납' 인쇄물과, 주요(?) 수출품에 붙이는 상표, 포장 인쇄 등이 있기는 했다.

그러나 정식 인쇄물의 경우는 삼화인쇄가 처음이었다. 삼화인쇄가 첫 수출의 쾌거를 이룬지 4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한해 인쇄물 수출액은 1억 5천만 불에 달하고 있다.

비지떡만도 못한 국산인쇄기

FTA(Free Trade Agreement) 협상까지 이루어져 무역 장벽이 많이 없어진 지금이지만, 과거에는 국내 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품목에 한해서만 수입이 허용됐다. 이른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인해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입이 허용되는 품목만 표시하고, 불표시품목은 수출입불가능 품목에서 제외되었는데 오프셋 인쇄기 역시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던 관계로 표시품목에 지정되지 못한 채 수입이 불가능했다. 국산 오프셋 인쇄기는 가격은 저렴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한해에 10대 이상이 판매되지 못할 만큼 인기가 없었고, 오히려 고급

인쇄기 수입만 가로막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인쇄문화시보 4월 30일자에는 국산인쇄기의 성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수입제한 조치를 풀어서 국내 인쇄물의 품질을 한 단계 높여,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문은 '인쇄는 단일 기술에서 효율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제지, 잉크, 화학 기계 등 관련 공업의 기술 총화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에 그 어느 부분이 기술상 미흡해도 인쇄기술 자체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며 국산 인쇄기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국산인쇄기가 '주물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실린더 통이 신축됨으로서 인쇄 상 핀트가 맞지 않고, 판통(실린더)이 너무 큰 관계로 인압이 너무 강하여 판면에 손(損)을 가져오고 판통과 고무통의 기야 교합상태가 일정치 않아 자주 고장이 난다'라고 지적했다.

롯데 껌 포장지는 사치품

1968년 4월 1일자 신문에는 국내에서 충분히 인쇄 가능한 껌 포장지를 수입한 롯데제과주식회사에 관한 기사를 싣고 있다. 신문은 '껌 포장지가 국내에서 소비되는 불요불급한 상품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외화를 낭비해 가면서 까지 수입해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자립경제의 터전을 확보하려는 정부 정책에도 크나큰 모순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치품 수입 억제 정책면에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정부 정책의 변화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전하고 있다.

신문은 아울러 당시 국내의 인쇄기술이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여, 10월 교과서 수출, 대일 조판지형 수출, 대미 전자 수출 등 막대한 외화를 획득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껌 포장지 수입이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신문은 또한 껌 포장지가 '구매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해서 판매량을 보다 증대시켜 보자는 심산에서 시발된 것으로 현재 롯데 껌의 매상액이 경품 실시이후 1일 천만원대까지 육박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외 포장지 값이 매상액의 10분의 1이라고 가정한다면 1일 백만원의 외화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사치품(?)을 수입하고 있는 롯데 제과를 비난하고 있다.

<이용우기자>